

(결)텍스트에서 번역자의 목소리 찾기 — 『목로주점』의 자유간접화법 번역의 경우*

박 선 희
(고려대)

1. 서론

번역자는 자신이 생산해낸 번역텍스트의 저자이다. 번역텍스트 안에 담긴 모든 글귀는 번역자의 언어로 표현된다. 그러나 작가와는 달리, 번역자는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타인의 창조물을 자신의 언어로 옮겨온 탓에 언제나 작가에 밀려 부차적인 존재로 취급받는다. 번역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원저자인 작가로 수렴되며, 독자들은 번역서의 문구들이 번역자의 언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이 원작을 투명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믿으며 번역서를 읽는다. 하지만 번역텍스트는 원문을 충실하게 복제하지 않는다(Hermans 1996: 24). 번역텍스트는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자가 해석한 결과물이 그의 언어로 재현된 것이다.

* 이 논문은 한국번역학회 2017 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독자들이 번역서를 읽으면서 스스로의 해석을 하듯, 번역자도 원문을 읽은 한 명의 독자로서 번역의 과정에서 번역텍스트 안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해석을 심기 마련이다. 이처럼 번역은 ‘다른 것이며, 복수이고 잡종’이다(Hermans 1996: 45). 단일한 하나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오해 받는 번역텍스트에는 여러 화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번역텍스트 안에 원작가의 목소리 외에 항상 존재하는 다른 목소리는 번역텍스트의 또 다른 저자인 바로 번역자의 목소리이다(Hermans 1996: 27).

번역본에서 번역자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역자의 말>이나 <역자주>와 같이 번역자가 주도적으로 생산한 결텍스트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텍스트가 아닌 번역본의 원문인 (번역)텍스트에서 자신의 번역에 대해 말하는 번역자의 목소리를 알 수는 없는가? 번역텍스트는 분명 원작가와 번역자, 그 외에 편집자 등등 여러 다자간 목소리의 혼합체이다. 다만, 번역자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번역자 결텍스트에 비해서, 번역텍스트에서 번역자의 목소리는 그 안에 내재되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문과 번역텍스트, 그리고 결텍스트를 상호 비교하면 번역텍스트 안에 내재된 번역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연구는 이런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번역텍스트에 안에 내재된 번역자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번역자 결텍스트와 원문, 번역텍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 대상은 『목로주점』이라는 프랑스 소설의 자유간접화법 번역에 담긴 번역자의 목소리이다. 작가 졸라(Zola)가 기술한 자유간접화법의 문체를 재표현하는 과정에서 번역자는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즉 자유간접화법 번역에 담긴 번역자의 번역 의도를 분석해보았다.

2. 번역문의 결텍스트

결텍스트(paratexte) 연구에서 있어서 빠짐없이 언급되는 연구자는 주네트(Genette)이다. 주네트는 그의 저서 *Seuils*(1987)에서 결텍스트를 공간적 특성, 시간적 상황, 본성적 특성, 화용적 특성, 기능성 특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였다(Genette, 1987: 10-19). 예를 들어, 흔히 결텍스트라고 통칭되는 것들은

주네트의 정의에 의하면 공간적 특성에 따라 주변텍스트(péritexte)와 바깥텍스트(épitexte)로 구분된다. 도서형태로 발간된 하나의 판본에서 원문과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결텍스트들은 주변텍스트이고, 그 판본과 붙어 있지 않은 결텍스트들은 바깥텍스트로 정의된다. 또한 화용적 특성으로는 발신자에 따라서 저자 결텍스트, 편집자 결텍스트, 제삼자 결텍스트로 구분되고, 그 텍스트가 대중, 독자, 비평가, 서적상 등 공적 수신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공적 텍스트로 구분되며, 저자 자신이거나 저자의 사적 서신 상대, 또는 절친한 친구라면 사적 결텍스트로 구분할 수 있다.¹⁾

그러나 주네트의 이러한 결텍스트 정의는 번역 판본이 아닌, 원문 판본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이므로 번역문의 결텍스트는 새로운 관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박선희(2015a)에서는 결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공간적 특성과 원문과 번역문에서 결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화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결텍스트를 정의한 바 있다. 화용적인 관점에서 번역문은 원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발신자인 번역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네트가 정의한 원문의 발신자, 즉 원문의 생성에 참여한 자들은 저자, 편집자, 제삼자로 구분되지만, 번역문의 발신자는 앞의 세 사람에게 번역자가 새로이 추가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번역문의 결텍스트들의 구체적인 종류들을 1차 공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번역문의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들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주변텍스트들은 다시 2차 화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발신자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박선희 2015a: 26).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들

- 저자 주변텍스트: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 편집자 주변텍스트 : 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 번역자 주변텍스트 : 번역자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자 약력 등
- 제삼자 주변텍스트: 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 해설 등

반면에, 바깥텍스트들은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다(박선희 2015a: 27). 발신자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주변텍스트들과 달리 아래의 바깥텍스트들은 번역자가 작성하는 ‘번역 노트’ 외에는 실상, 저자, 편집자, 번역자, 제삼자 등 모든 발신자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문의 바깥텍스트

- 공적 바깥텍스트 :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계시문, 단행본 또는 단행본의 일부, 학술 논문, 서평, 독후감 등
- 사적 바깥텍스트 : 편지, 일기, 사적 대화, 번역 노트 등

예를 들어, 원문의 저자도 외국어로 번역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으며, 번역자도 자신의 번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 밖에 편집자도, 번역과 관련이 없는 제삼자도 그 번역에 대해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텍스트들은 발신자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바깥텍스트의 경우, 수신자가 공적 대상이나 사적 대상이냐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적 바깥텍스트와 사적 바깥텍스트로 나뉘었다.

이를 참고하여, 번역의 텍스트와 그 결텍스트에 담긴 번역자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에 담긴 번역자의 목소리를 찾기 전에, 먼저 결텍스트에 담긴 번역자의 목소리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번역자 주변텍스트인 번역본의 <역자 해설>과 공적 바깥텍스트인 번역자의 <학술 논문>에서 이 소설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다.

3. 결텍스트에서 번역자의 목소리 찾기

3.1 『목로주점』에서 자유간접화법의 위상

에밀 졸라(Émile Zola)가 쓴 『목로주점』은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던 19세기 제2제정 시기를 배경으로 파리 번두리의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민중 소설’

1) 주네트의 자세한 결텍스트 구분들은 박선희(2015a: 16-24)에서 참고 가능하다.

이다. 줄라는 이 소설의 서문에서 민중의 언어(*la langue du peuple*)로 민중에 대한 소설(*le premier roman sur le peuple*)을 썼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Zola 1961, Préface; 에밀 줄라, 윤진 역, 2011: 636; 유기환 역 2012: 197 & 208). 흔히 문학 비평가들에 의해서 “유전론과 환경 결정론이 적용된 자연주의적인 노동 소설”(에밀 줄라, 유기환 역 2011: 633)로 정의되는 이 소설에서 줄라가 재현한 ‘노동자들의 언어’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연관된다.

작가는 19세기 당시 파리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으나, 소위 ‘문학 작품’이라고 불리는 글 속에 담긴 노동자들의 거친 욕설과 저속한 비속어, 은어들은 당대의 비평가들의 혐오를 불러 일으켰다. 고상하고 우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고전주의 전통을 문학 규범으로 삼고 있던 이들로서는 노동자들의 거친 언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Niess 1974-1975: 126). 이러한 문학계의 반발과 비판에 의해 줄라는 *Le Bien Public* 신문의 연재를 중단해야 했었다. 그 만큼 당시에 문단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노동자들의 언어는 이 소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소설에서 노동자들의 언어는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과 같은 전통적인 화법 이외에도 자유간접화법이라는 혼합 문체를 통해서도 독자들에게 전해진다.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자유간접화법의 출현 빈도는 매우 잦으며 한 번에 제시되는 구문의 길이가 긴 경우도 상당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줄라는 자유간접화법의 연구자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 구문 안에 여러 화자의 음성이 혼합되는 이러한 언어 현상에 대해 ‘자유간접문체(*Style Indirect Libre*)’라고 명명한 사람은 프랑스어권의 스위스인 샤를 바이(Charle Bally)였고, 바이의 제자인 마르그리트 립스(Marguerite Lips 1926)는 프랑스 작가들에 의한 자유간접문체 사용을 프랑스 문학사의 관점에서 정리한 바 있다. 립스는 이러한 다자간의 음성 혼합은 중세 때부터 있어왔지만, 작가들이 이를 의식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19세기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시기로 정의하였다. 그 선두는 플로베르(Flaubert)이며 줄라가 그 뒤를 잇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플로베르의 자유간접문체는 그 사용이 매우 교묘하다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던 립스가 줄라에 대해서는 『목로주점』에서 이 문체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길게 사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Lips 1926: 137-148). 하

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줄라를 매몰차게 비판했던 저서(1926)에서 립스는 자유간접문체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줄라의 자유간접문체 예문을 자주 인용한다. 등장인물의 언어적 특성을 드러내는 직접화법적 요소들을 자주 사용하는 줄라의 문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줄라의 자유간접문체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혼합적 특성을 설명하기 좋은 소재였던 것이다(Pascal 1977: 112).

등장인물이 한 ‘말’이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으로 기술될 때 인물이 말 한 구어는 서술자의 문어로 기록된다. 즉 서술자의 문어의 틀에 인물의 구어적 요소가 혼합되는 것이다. 자유간접화법은 등장인물의 말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형식이지만,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에서 발견되는 ‘~라고 말했다’와 같은 인용표지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호해지는 다음성적 모호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설을 읽는 독자 스스로가 서술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문체이다. 이러한 자유간접화법에 대해서 『목로주점』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무엇이려 했는지, 번역자들의 결텍스트인 <학술논문>과 <역자해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찾아보았다.

3.2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목소리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판본은 2011년에 동시에 출판된 윤진(2011, 펭귄클래식코리아), 유기환(2011, 열린책들), 김명숙(2011, 문학동네) 번역의 판본들이다. 『목로주점』은 1970년대에 번역된 판본들이 있지만, 그 번역본들에서는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11년의 세 번역자들의 결텍스트에서는 이 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세 번역본 모두 같은 시기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공시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번역자들이 모두 프랑스 문학 전공자라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역자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무리 없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윤진의 경우, 번역자 바깥텍스트인 학술논문(2010)에서 『목로주점』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결텍스트에 나타난 번역자들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견해들 중 일부는 박선희(2016: 117-118)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졸라는 『목로주점』 서문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 요구에 대해 말하는데, 즉 한편으로는 당시 파리 노동자들의 어법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재현해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언어가 문학적 틀 안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설가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자유간접화법을 통한 **목소리의 혼합**이었다.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은 무엇보다도 **그 '다성적 효과'를 통해** 화자의 중립성을 마련해주며, 해부 *anatomic*에 가까운 중립적인 시선을 만들어 내는 데 기여한다. (윤진 2010: 329; 굵은 글씨는 저자 강조, 이하 동문)

위의 언급에서 번역자는 문학적인 언어의 틀 안에 파리 노동자들의 언어를 담아내는 방법이 졸라의 자유간접화법 사용이었으며, 그 안에는 화자와 노동자의 목소리가 혼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와 노동자의 목소리가 혼합된 다성적인 구문 안에는 노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화자가 알려주는 화법의 전달 표지 ‘~라고 말했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써, 마치 화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 스스로 그렇게 말한 인상을 주게 되고, 화자는 인물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듯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번역자의 다음 말을 보면 윤진의 번역본에서는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이 자유간접화법으로 번역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말 번역의 경우 자유간접화법이 지니는 가능성들을 동시에 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번역자로서는 화법의 모호성이 만들어내는 서술의 긴장을 가능한 한 살려내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진 2010: 329)

서술자인 화자와 등장인물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혼합되고, 그 말의 전달자인 화자의 중립적인 태도를 만들어 내는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을 언어 체계가 다른 한국어로는 제대로 옮겨내기 불가능하다고 번역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자인 유기환도 <역자해설>에서 자유간접화법은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한다.

『목로주점』이 보여 준 언어의 현대성은 민중 언어의 사용뿐만이 아니라 <자유 간접 화법>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는데, **자유 간접 화법이란 서술자**

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결합한 형태를 일컫는다. (유기환 2011: 637)

[...]

『목로주점』 번역의 성패는 바로 이 **민중 언어를 얼마나 우리말로 실감나게 옮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유기환 2011: 643)

게다가 번역자의 다른 학술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유간접화법의 언어적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과 간접화법 사이의 매개적 화법을 가리킨다. **자유간접화법이 간접화법과 다른 점은 'Il dit que'와 같은 보고 동사와 접속사가 생략되고, 호격, 감탄사, 의문문 등이 사용된다는 사실에 있다** 자유간접화법이 직접화법과 다른 점은 **인용부호 하이픈 같은 그래픽 요소의 부재, 'dit-il'과 같은 언술 행위 요소의 부재 3인칭 과거 시제의 사용 등이다**. 서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자유간접화법은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 즉 디에게시스와 미메시스 사이의 매개적 목소리를 구현한다. (유기환 2012: 209)

이를 통해 번역자 유기환은 자유간접화법이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혼합된 형태이고,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과 직접화법, 간접화법의 형식적인 차이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들을 보면, 이 번역자는 이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민중 언어를 재현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번역자의 목소리가 그의 번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마지막 번역자 김명숙도 역자 해설을 통해, 번역자 유기환과 마찬가지로,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고, 거기에는 인물과 화자의 목소리가 혼합되어 다성적인 모호성이 있음을 밝힌다.

다소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자유간접화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간접화법에서 도입부, 즉 주절이 생략된 형태의** 자유간접화법에서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주체인 화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인물의 목소리와 화자의 목소리가 서로 뒤엉키면서 그 경계가 모호**진다. (김명숙 2011: 362-363)

이와 같이 번역자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번역자 결텍스트들을 통해서 『목로주점』의 세 번역자 모두 번역 시점에 올라가 사용한 자유간접화법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들 모두 자유간접화법에는 화자와 인물의 목소리가 그 경계가 분명치 않게 혼합된 모호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윤진은 한국어로는 이런 특성을 살리기 힘들다고 불가능성을 언급한 반면에, 유기환과 김명숙은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언어적 형태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한국어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이 어떤 형태로 태어날 것인지 기대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 세 번역자들의 번역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문 하나를 통해 그들의 선택을 살펴보자.

4. 텍스트에서 번역자의 목소리 찾기

4.1 『목로주점』의 자유간접화법 번역 양상

번역자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번역자 결텍스트와는 달리, 번역본의 본문인 텍스트에서는 번역자의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텍스트 기저에 감춰진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번역된 양상과 번역자 결텍스트를 통해 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서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예문은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 중 하나인 랑티에의 말이 [자유간접]과 [직접] 화법으로 기술된 부분이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형식적으로는 [서술]과 전혀 구분이 안되는 구문들이 랑티에의 ‘말’이 [자유간접]화법으로 기술된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직접] 화법도 같은 인물인 랑티에의 말이다. 즉 한 사람의 말이 [자유간접]으로 나오다가 다시 [직접] 화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무슨 근거로 [자유간접]으로 해석되는가?

[서술] Puis, brusquement, Lantier se mit à attaquer aussi les patrons. [자유간접] Oh ! il voyait clair, il disait ses vérités à chacun. Une sale race après tout, des exploités sans vergogne, des mangeurs de monde. Lui, Dieu merci ! pouvait dormir la conscience tranquille, car il s'était

toujours conduit en ami avec ses hommes, et avait préféré ne pas gagner des millions comme les autres.

[직접] — Filons, mon petit, dit-il en s'adressant à Coupeau. Il faut être sage, nous serions en retard. (620)

[윤진 역] 그러더니 랑티에는 뜬금없이 고용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유직접] 오! 난 사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 누구한테도 다 내 생각을 다 말할 수 있지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인간들은 정말 더러운 족속이라네 사람들을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지. [간접] 랑티에는 자기는 노동자들을 늘 친구처럼 대했다고 했다. 자기는 절대 그런 인간들처럼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고, 발 뺀고 편히 잘 수 있다고도 했다. “자, 이제 가야지.” 랑티에가 쿠포를 보며 말했다. “말썹 부리면 안 되잖아. 이리다 늦겠군.” (하 42)

[유기환 역] 이어서 그는 갑자기 주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유직접] 야! 내가 불을 보듯 환히 알지, 그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날날이 밝힐 수 있어 결국 더럽기 짝이 없는 족속들이고, 부끄러움도 없는 착취자들이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귀들이야. 나야 다행히 두 발을 뺀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왜냐하면 직공들을 늘 친구처럼 대했고, 다른 주인 놈들처럼 몇 백만 프랑씩 벌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 나가세, 친구」 그가 쿠포에게 말했다. 정신 차려야지. 이리다가 늦겠어. (369)

[박명숙 역] 그러다가 랑티에는 이번에는 고용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유간접] 오! 그는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맞는 진실을 얘기할 뿐이었다고 고용주들은 따지고 보면 비열하기 짝이 없는 족속이었다 뽀뽀하게 착취를 일삼고,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자들이 아닌가. 하지만 그는 다행스럽게도 편안히 발을 쭉 뺀고 잠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리는 일꾼들을 언제나 친구처럼 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고용주처럼 수백만 프랑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터였다 “자, 이제 그만 가자고, 친구.” 그는 쿠포를 향해 말했다. “자제할 줄 알아야지. 이리다가 늦겠네.” (하 48)

먼저 원문의 [자유간접] 앞에 나오는 “Lantier se mit à attaquer aussi les

patrons.”라는 [서술] 부분이 그 다음 이탤릭체 구문들을 랑티에의 ‘말’이라고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탤릭체 구문들이 고용주들을 욕하는 내용으로 맥락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간접]으로 정의된 구문에는 구어에서 사용될 만한 ‘Oh!’나 ‘Dieu merci !’가 포함되어 있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는 ‘Une sale race’나 ‘des exploitateurs sans vergogne’ 등의 표현이 “attaquer les patrons”이라는 맥락과 일치하므로 원문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들은 서술자의 설명이나 묘사가 아닌, 랑티에의 ‘말’을 서술자가 명확한 인용의 표지 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자유간접] 구문에는 랑티에의 ‘말’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는 랑티에가 ‘je’라고 말했을 인칭대명사를 3인칭대명사 ‘il’로 기술하고, 그가 말한 현재 시제의 ‘말’을 반과거 시제로, 과거 시제의 ‘말’은 대과거 시제로 기술함으로써 3인칭대명사와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최종 화자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가 전달하는 문어의 틀에 랑티에의 ‘말’이 인용표지 없이 재현된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세 번역자들은 이 랑티에의 ‘말’을 어떻게 번역하였을까? 우선 윤진의 경우, 랑티에의 구어를 그대로 전하는 [자유직접]화법과 ‘랑티에는 ~다고 했다’라는 인용 표지를 사용하여 [간접]화법으로 나누어 전한다. 유기환은 해당 구문을 모두 [자유직접]으로, 반면에 박명숙은 [자유간접]으로 재현하였다. [자유직접]은 직접화법의 인용 기호(“ ”) 사이에 포함되는 구문을 그대로 들어내어 구어 표현 그대로 전하는 것으로 문어인 서술문과 쉽게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명숙의 번역이 왜 [자유간접]인지 살펴보자. 박명숙의 [자유간접] 구문은 3인칭대명사와 문어형 종결어미로 기술되는 서술문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이 서술문과 형식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어 자유간접화법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술문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이탤릭체 구문들이 서술문으로만 읽히는 것은 아니다. [자유간접] 이전의 서술에서 ‘고용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랑티에가 곧 고용주들을 비난하는 말을 할 것이라는 예고가 되어 있고, 이탤릭체 구문들 내부에서 발견되는 ‘오!’와 같은 감탄사나 ‘비열하기 짝이 없는’, ‘뻔뻔하게 착취를 일삼고’와 같은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 랑티에의 입장과 일치하므로, 해당 이탤릭체 구문은

이러한 지표들을 동반하는 텍스트의 맥락에 의해서 랑티에의 ‘말’로 읽힌다.

한편, 박선희(2016: 102)에서는 세 번역자들이 원문의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을 한국어로 번역한 형식들을 표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³⁾

번역본	서술	간접	자유간접	직접	자유직접
윤진	4	15	10	1	46
유기환	7	11	22	0	42
박명숙	4	4	57	0	16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 형식을 보면 윤진과 유기환이 [자유직접] 형식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에, 박명숙은 같은 구문을 [자유간접] 형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줄라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관점을 나타내며, 그들이 번역해 낸 문체 형식 안에 줄라의 자유간접화법에 관한 그들의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그들의 번역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4.2 텍스트에 내재된 번역자들의 목소리

우선 [자유직접] 형식을 가장 많이 선택한 윤진과 유기환의 번역에서는 인물과 서술자의 음성을 모호하게 섞는 [자유간접]의 언어적 형식을 찾는 데 치중하기 보다는 작품에 출현하는 인물들의 언어적 특성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민중 언어’ 재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진의 경우, 번역본 출간 전 학술논문에서 한국어 자유간접화법의 재현 불가능성을 비침으로써 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적 재현에 치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

3) 박선희 (2016: 102)에서는 1970년대 과거 번역본 3편과 2010년대 현대 번역본 3편, 총 6편의 자유간접화법 번역 양상이 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현대 번역본 3개의 결과만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이 표는 『목로주점』 전체 13장 중 인물의 ‘말’을 재현한 자유간접화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1장과 12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장에서 2-3구분 단위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세 번역본의 전반적인 번역 경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2016: 101).

하게 했었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 자유간접화법에 여러 화자의 목소리가 혼합되어 있고, 번역자로서 화법의 모호성이 만들어내는 서술의 긴장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번역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자유직접]의 번역 방식은 서술자의 목소리는 감추고 인물의 목소리를 부각시킨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재현한 번역 방식은 인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유기환의 경우도 결텍스트를 통해 자유간접화법의 음성 혼합과 프랑스어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에 대해서 말한 바 있으나, [자유간접]의 형식적 모호성에 번역의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노동자들의 ‘말’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미 결텍스트 곳곳에서 번역자가 이 작품에서 번역의 관건은 노동자들의 민중 언어를 얼마나 생생하게 살리느냐에 있다고 말한 부분이 번역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윤진과 유기환의 자유간접화법의 번역에서는 모호하게 여러 화자의 목소리를 섞는 것보다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번역자들의 음성, 즉 그들의 번역 의도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목로주점』에서 사용된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이 두 타자의 혼합된 음성들 중 서술자의 음성보다는 인물의 음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구어적 특성이 강한 것과 연관된다. 이러한 특성이 번역자들로 하여금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을 혼합하는 방식보다는 인물의 어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선택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이 번역자들의 선택과는 대조적으로, 박명숙은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을 인용 표지 없이 서술형 어미로 종결되는 구문들로 번역함으로써 서술자와 인물의 음성이 혼합되게 하였다. 번역자는 결텍스트에서 자유간접화법의 모호한 음성 혼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고,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 언급하기도 하였다. 결텍스트에서 자유간접화법에 대해 말한 번역자의 목소리는 번역 텍스트로 이어져 서술자의 문어 틀 안에 인물의 구어 특성을 심는 형식을 채택한 경우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이 번역자는 자유간접화법 번역에 있어서 자유간접화법으로서의 형식 유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졸라가 왜 『목로주점』에서 자유간접화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의 자유간접화법은 어떠한 언어적, 그리고 문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 문학과 언어학 연구자들을 통해서 들었다. 이 번역본들의 한국어 번역자들 또한 그들의 ‘역자해설’과 ‘학술논문’을 통해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해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번역본의 또 다른 저자인 번역자들이 왜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을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했는지 번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없었다. 번역자는 그저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기술(技術)자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어로 번역된 『목로주점』은 졸라의 소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어로 읽는, 번역된 『목로주점』은 온전히 졸라의 것만은 아니다. 번역은 번역자들이 텍스트를 해석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본의 또 다른 저자인 번역자가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텍스트 속에 내재되어 보이지 않는, 졸라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한 번역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을 자유직접화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목로주점』의 등장인물들인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들의 언어적 특성을 실감나게 재현하는 것이 이 소설의 번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번역자의 목소리를 가늠할 수 있었다. 번역자들은 그들의 결텍스트에서 자유간접화법이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모호하게 섞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으나, 한국어로는 그런 혼합을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나, 혼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언어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 졸라의 문체를 더 실감나게 옮기는 방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이 번역문에서도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번역자는 서술자와 인물의 경계 없는 음성 혼합을 인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자유간접화법의 형식을 통해 표현하는 것 또한 그의 번역에서 중요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번역 작업에 있어서 원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적, 문체적 특성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번역의 이상에 불과하다. 번역의 도착언어로 『목로주점』의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번역된 텍스트의 서술자는 졸라 뿐만 아니라 번역자이며,

그 번역의 결과물은 번역자의 해석에 따라 재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간접화법 번역의 이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번역자의 생각을 번역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참고문헌

- 박선희 (2015a)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박선희 (2015b) 「문학번역에서 자유간접화법,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16(5): 39-60.
- 박선희 (2016) 「『목로주점』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에 관한 비평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108: 95-124.
- 윤진 (2010) 「낮습의 번역, 번역의 낮습 — 에밀 졸라의 『목로주점』 번역 읽기」, 『불어불문학연구』 84: 325-366.
- 유기환 (2012) 「자연주의 소설로서의 『목로주점』의 현대성-과학과 언어」, 『프랑스학연구』 59: 195-218.
- Dubois, Jacques (1973) *l'Assommoir de Zola: société, discours, idéologie*, Paris: Librairie Larousse.
- Genette, Gerard (1987) *Seuils*, Paris: Editon du Seuil.
- Hermans, Theo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 Lips, Marguerite (1926) *Le style indirect libre*. Paris: Payot.
- Maingueneau, Dominique (2010) *Manuel de linguistique pour les textes littéraires*. Paris: Armand Colin.
- Niess, Robert J. (1974-1975) 'Remarks on the "Style Indirect Libre" in "L'assommoir"', *Nineteenth-Century French Studies* 3: 124-135.
- Pascal, Roy (1977) *The Dual Voice*. Manchester: Manchester UP.

<분석 대상 도서>

Zola, Émile (1961) *L'Assommoir*, in *Les Rougon-Macquart II*, Paris: Éditions Gallimard.

에밀 졸라 (2011) 『목로주점』, 박명숙 역. 서울: 문학동네.

에밀 졸라 (2011) 『목로주점』, 윤진 역. 서울: 펭귄클래식코리아.

에밀 졸라 (2011) 『목로주점』, 유기환 역. 서울: 열린책들.

[Abstract]

**Looking for Translators' Voices in the Translated texts and their Paratexts
— the Case of the Translations of Free Indirect Discourse in *L'Assommoir***

Park, Sunheui
(Korea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find the translators' voices which exist in the translated texts of free indirect discourse in *L'Assommoir*. Translating a text is a process of interpretation. Before translating an original text, the translator is, first of all, its reader and creates his translation from his interpretation. As a result, the translation includes the translator's voice. Nevertheless, people often think that there is only one author in a translated text, the author of the original text. But, in fact, there is also the translator's voice, which corresponds to the actual author of the translated text. I have therefore compared the original text of *L'Assommoir*, its translations and the paratexts of these translations in order to listen to the translator's voices on the free indirect discourse of this novel.

First, to clearly listen to the voices of translators on the free indirect discourse in *L'Assommoir*, I consulted their ideas about free indirect discourse in the paratexts of translators, such as academic journals and translator's prefaces. Then, to perceive the latent voices of the translators in the translated texts, I compared the translated forms of free indirect discourse.

▶ Key Words: free Indirect discourse, polyphony, *L'Assommoir*, paratext, translator's voice

▶ 주제어: 자유간접화법, 다음성, 목로주점, 겉텍스트, 번역자의 목소리

박선희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BK연구교수

omoname@kore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체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4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